

韓國 古代 佛舍利莊嚴에 미친 중국의 영향

周 炘 美*

I. 머리말
II. 三國時代
III. 統一新羅
IV. 渤海
V. 맺음말

I. 머리말

석가모니의 열반 후 얻어진 사리에 대한 신앙과 숭배는 불교 초기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널리 행해지고 있다. 고대 한국과 중국에서도 佛舍利信仰과 관련된 여러 유물들이 상당수 전한다.舍利를 봉안하기 위하여 사용했던 각종 장엄구들과 舍利를 공양하기 위해 바쳐진 각종 공양구들, 그리고 사리를 봉안했던 장소인 탑과, 혹은 전각 등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佛舍利는 협의의 의미로는 석가모니 부처의 身骨舍利(身舍利)를 말하며, 광의의 의미로는 불교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사리, 즉 身舍利와 法舍利(法頌舍利), 僧舍利 등을 포괄한

* 서울대학교 강사

뜻으로 사용된다.¹ 이 논문에서는 대체로 광의의 의미로서 '佛舍利' 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현재까지 한국 고대 불사리장엄구에 대한 연구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심도깊게 진행되어 왔다. 특히 1991년 國立中央博物館과 2000년 通度寺 聖寶博物館에서 열렸던 대규모의 佛舍利 관련 전시회 등을 통하여 한국 고대 불사리장엄구에 대한 연구는 크게 발전하였다.² 최근까지도 전국 각지의 탑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새로운 자료가 지속적으로 발굴,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되고 있다.³

불교가 한반도에 전래된 이래, 다른 불교미술 장르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불사리장엄은 형식적인 면에서는 중국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그러나 그러한 영향속에서도 통일신라 이후에는 독자적인 양식을 전개해왔으며 그 원동력은 독자적인 사리신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필자는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발해시대까지의 불사리장엄에 미친 중국의 영향에 대해서 각 시대별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韓中 古代 佛舍利莊嚴具의 형식 및 신앙등을 비교 검토하여 한국 불사리장엄 양식의 독자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II. 三國時代

三國 중에서 불교가 가장 먼저 전래된 것은 고구려이지만, 불사리장엄과 신앙면에서 가장 먼저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고신라이다. 현존 유물도 고신라가 특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현존 유물과 문헌 자료가 풍부한 고신라부터 백제, 고구려의 순으로 각 나라별 불사리장엄에 대해서 고찰하겠다.

1 '佛舍利' 와 '舍利' 의 구체적인 개념과 용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望月信亨, 『佛敎大辭典』 3(東京: 世界聖典刊行協會, 1973), pp. 2185-2188 및 周旻美, 「中國 古代 佛舍利莊嚴 研究 - 魏晉南北朝隋唐時代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pp. 5-10 참조.

2 國立中央博物館, 『佛舍利莊嚴』(國立中央博物館, 1991, 이하 『佛舍利莊嚴』으로 약칭). 通度寺聖寶博物館, 『佛舍利 信仰과 그 莊嚴』(通度寺聖寶博物館, 2000).

3 한국 고대 사리장엄구에 대한 종합적 연구로는 金禧庚, 張忠植, 姜友邦, 강순형, 金妍秀 등의 논고 및 석사학위논문이 있으며, 연구업적 목록은 通度寺聖寶博物館, 앞의 책, pp. 136-138 및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감은사지 동삼층석탑 사리장엄』(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pp. 216-235 참조.

1. 古新羅

삼국중 가장 먼저 사리가 전래된 것은 현존하는 문헌상으로는 古新羅이다. 『三國遺事』와 『三國史記』에 의하면 신라 眞興王 10년, 서기 549년에 중국 梁에서 사신인 沈湖와 승려 覺德을 파견하여 사리를 전해왔다. 이때 왕은 백관들로 하여금 길앞에서부터 맞이하여 공양하였으며 이 사리는 興輪寺에 안치되었다.⁴ 당시 사리 공양과 안치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전하지 않으나, 梁에서 전래된 사리는 당연히 南朝의 사리장엄 방식을 따라서 공양되었을 것이다.

신라에 사리가 전해진 549년은 梁 武帝(502-549 재위)의 치세말년으로, 당시 南朝의 불사리장엄은 매우 발전해 있었다. 武帝年間の 대표적인 사리공양으로는 長干寺塔과 會稽 鄞縣塔의 사리공양이 대표적이다.⁵ 특히 538년 건립된 長干寺의 雙塔에는 각각 金罍-玉罍-七寶塔-石函의 4중 용기로 구성된 莊嚴具 세트를 마련하고, 가장 안쪽의 용기인 金罍안에 각각 舍利와 佛爪鬚를 안치하였다. 두 세트는 각각 塔基의 刹 아래에 안치되었고, 그 위에 각종 공양물을 공양하였다.⁶ 이러한 武帝 연간의 長干寺 사리장엄구와 공양방식은 사리의 전래와 함께 신라로 전해졌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탑형 용기의 사용과 쌍탑의 건립 등이 일찍부터 신라 불교계에 전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신라에 전래된 또 다른 사리의 전래기록은 眞興王 말기인 576년경의 예가 전하고 있어서, 당시 여러 차례에 걸친 신라와 중국과의 불사리신앙과 장엄 관련 교섭이 문헌상으로 확인된다.⁷

仁壽 元年(601) 중국의 隋 文帝는 전국 30개 지역에 탑을 세우고 사리를 공양하였다. 隋 文帝는 조칙을 통하여 仁壽舍利塔과 舍利莊嚴具의 형식을 통일하고 한날 한시에 전국 각지에서 사리와 장엄구를 매납하였다. 문헌에 의하면 仁壽舍利器는 金瓶-琉璃瓶-銅函-石函의 4중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 金瓶과 琉璃瓶은 중앙에서 한꺼번에 제작하였고, 銅函과 石函은

4 “國史云 眞興王 大清三年己巳 梁使沈湖 送舍利若干立”(『三國遺事』卷3「前後所藏舍利條」). “十年春 梁遣使與入學僧覺德 送佛舍利 王使百官奉迎興輪寺前路.”(『三國史記』卷4「新羅本紀」第四 眞興王條).

5 周旻美, 앞의 논문(주1), p. 51.

6 『梁書』卷54「列傳」扶南國條.

7 眞興王 37년 安弘法師가 『능가경』과 『승만경』, 그리고 부처의 사리를 전래하였다. 『三國史記』卷4「新羅本紀」第四 眞興王條.

각 해당지역에서 제작했다.⁸

『廣弘明集』 권17에 의하면 당시 仁壽舍利供養 때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사신이 각각 사리를 청하여 한 과씩 하사받았는데,⁹ 당시 삼국의 사신들은 사리와 함께 중앙에서 하사한 莊嚴具인 金瓶과 琉璃瓶을 함께 하사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三國과 중국간의 불사리 신앙 및 교섭상황을 알려주는 중요한 기록으로서, 당시 隋의 仁壽舍利莊嚴方式이 직접적으로 한반도 삼국에 전래되었음을 알려준다. 현존하는 당시의 사리장엄구는 없지만, 조금 늦은 시기인 선덕여왕시대의 불사리장엄구에서는 중국과의 연관성을 찾아 볼 수 있어서 주목된다.

634년 선덕여왕의 발원으로 건립된 분황사 모전석탑 출토 사리장엄구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고신라의 작품이다. 外函으로 사용된 石函은 파손이 심하지만, 안에 방형공을 마련하고 뚜껑은 모죽임으로 처리하였다도¹. 이러한 모죽임처리를 중국에서는 盞頂形이라고 하는데, 盞頂形方形函 형식은 南北朝時代 이후 중국 사리장엄구의 가장 대표적인 형식이다도².¹⁰ 즉 7세기 전반 신라 왕실발원 불사리장엄구의 外函 형식에 중국의 영향이 반영되었다.

外函의 형식 뿐만 아니라, 장엄구의 안치방식에서도 중국의 영향이 간취된다. 분황사 사리장엄구는 탑신부에 안치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탑신부 안치 방식은 唐代 7세기 전반경의 陝西省 長安縣 天子峪 廢磚塔과 8세기 중반 陝西省 法王塔 등 중국의 磚塔內 사리 안치 방식과 동일하다. 陝西省 長安縣 天子峪 廢磚塔은 僧舍利塔으로 추정되는데, 탑신 3층 중간부에 마련된 사리감실에서 銀盒-小銀盒-金盒의 3중 圓形盒 형태의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었으며,¹¹ 法王塔의 경우에는 탑신 2층 내부에 마련된 사리감실(天宮)에서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었다.¹² 이렇게 外函의 형태 및 안치 방식등에서 중국의 영향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549년과 601년 등에 걸쳐 중국과 직접적인 교류가 빈번하게 있었기 때문이다.

역시 선덕여왕대인 643년에는 唐에서 귀국한 慈藏이 佛頭骨과 佛牙, 舍利 100립 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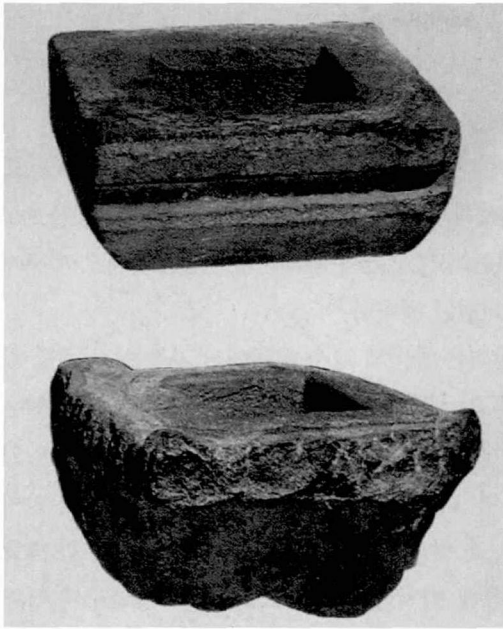
⁸ 隋文帝의 仁壽舍利器 관련문헌에 대해서는 周昞美, 앞의 논문(주1), pp. 65-81 참조.

⁹ “高麗 百濟 新羅 三國使者將還 各請一舍於本國起塔供養 詔並許之” (『廣弘明集』 卷17, T2103, 52:217a), T는 大正新修大藏經의 略語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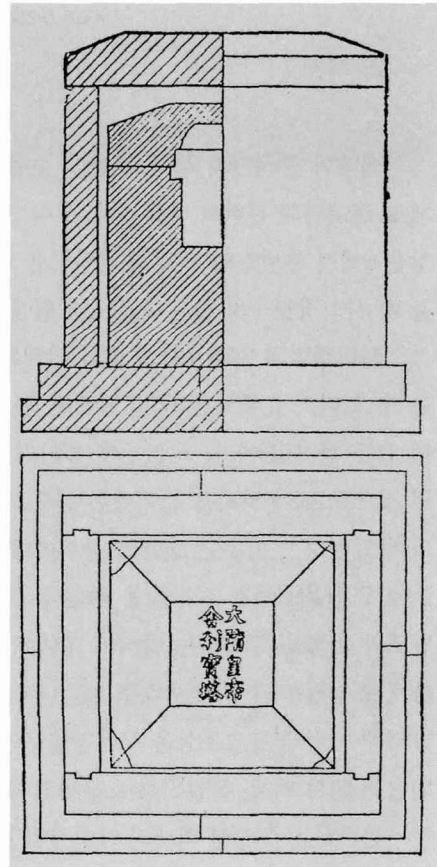
¹⁰ 盞頂形方形函의 가장 이른 현존 예는 河北省 定縣 靜志寺 地宮에서 출토된 北魏 興安二年(453)銘 石函이며, 隋代 仁壽舍利器 중 石函과 銅函들도 대부분 盞頂形方形函 형식을 따르고 있다. 定縣博物館, 「河北定縣發現兩座宋代塔基」, 『文物』(1972, 8), p. 40. 周昞美, 앞의 논문(주1), pp. 91-95.

¹¹ 朱捷元·秦波, 「陝西長安和耀縣發現的波斯薩珊朝銀幣」, 『考古』(1974, 2), pp. 126-132.

¹² 劉采運, 「仙遊寺法王塔的天宮地宮與舍利子」, 『收藏家』45(2000, 7), pp. 60-64.



도 1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출토
舍利石函, 古新羅 (643년경),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도 2 中國 山東省 平陰縣 출토
方形 舍利內外石函, 隋(7세기 전반), 外函 높이 135cm

가져왔다. 당시 慈藏이 전래한 사리는 황룡사탑과 太和塔, 통도사계단 등에 나누어 안치되었다.¹³ 1960년대 중반 발견된 황룡사 목탑지 심초석 출토 사리장엄구 중에는 앞서 언급한 7세기 전반경 陝西省 長安縣 天子峪 출토 3중 원형합형태의 사리장엄구와 형식적인 면에서 공통성을 갖는 多重容器가 있어서 주목된다. 둥그스름한 바닥면의 처리, 뚜껑과 몸체의 비례 등 天子峪 출토품과 같은 형식의 金銀製 圓形盒은 바로 7세기 전반경 중국의 영향을 보여주는 불사리장엄구의 한 형식이다.¹⁴

¹³ 『三國遺事』 卷3 「前後所將舍利」條.

¹⁴ 『佛舍利莊嚴』, p. 18의 上.

2. 백제

백제와 중국간의 불사리 관련 교섭에 대한 문헌기록이나 현존 유물은 많지 않으나, 대체로 南朝와의 관련이 주목된다. 부여 군수리사지의 석탑 심초석 윗부분에서 출토된 불보살상은 6세기 후반경의 백제 조각양식을 대표하는 彫像으로 주목되는데,¹⁵ 출토위치로 미루어 볼 때 사리장엄구의 한 부속품으로 탑에 매납되었던 것이다.¹⁶

사리장엄의 일부로서 彫像을 안치하는 방식은 중국의 경우 南朝에서 가장 이른 예를 찾을 수 있다.¹⁷ 仁壽元年(601) 발견된 番州 출토의 사리장엄구는 3개의 석함으로 구성되었는데 그중 한 石函에 宋 元徽元年(473)의 명문이 있었다. 그중 한 석함에는 금은제 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사리를 안치했던 것으로 보이며, 다른 두 석함에는 동함과 銀製 彫像이 안치되어 있었다.¹⁸ 이것은 南朝의 불사리매납방식을 알려주는 문헌으로서 주목된다. 또한 南齊武帝 7년(489)에는 思惟像을 禪靈寺 塔基아래에 안치했다고 하므로,¹⁹ 사리장엄구와 함께 별도의 彫像을 안치하는 방식이 南朝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北魏時代 초창된 河南省 嵩岳寺塔 地宮에서는 北魏 正光 4年(523)銘 釋迦像片이 발견되기도 하였다.²⁰ 이렇게 불교조상을 사리장엄구와 함께 탑 아래에 매납하는 방식은 南朝에 처음 전래되어 北朝와 백제, 통일신라로 전해졌다.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의 사리장엄구는 567년 昌王의 누이에 의해서 발원된 昌王銘 사리

¹⁵ 위의 책, p. 10의 上左 및 上右.

¹⁶ 朝鮮古蹟研究會, 『扶餘軍守里廢寺址發掘調査』, 『昭和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朝鮮古蹟研究會, 1937, 6), pp. 4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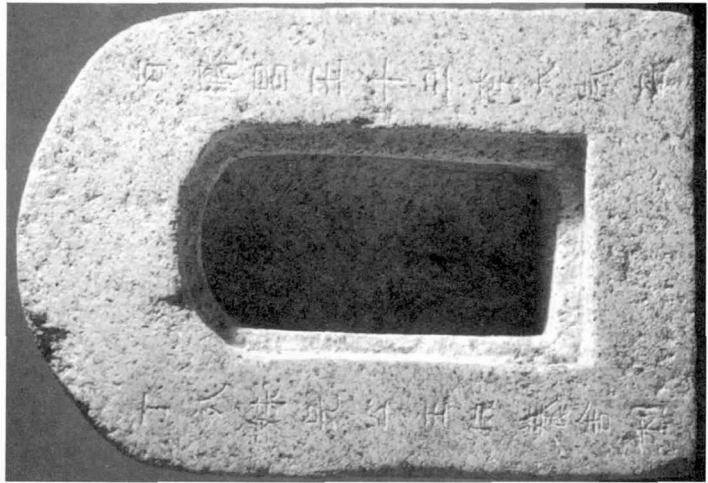
¹⁷ 사리장엄구의 표면이나 장식으로 불보살을 비롯한 彫像을 표현한 가장 이른 예는 비마란 사리용기와 카니쉬카 사리용기 등 간다라지역에서 찾아 볼 수 있다. 周旻美, 「간다라 사리장엄구 연구 서설」, 『考古歷史學志』 16(2000, 3), pp. 387-389. 그러나 간다라와 북인도 지역에서 사리와 함께 별도의 彫像을 장엄구의 일부로서 안치한 예는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다. 『마하밤사(Mahāvāsa, 大史)』에 의하면, 기원전 1세기 실론에서는 사리를 안치하는 감실 내에 불좌상과 제자상, 사천왕상 등 여러 존상을 안치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彫像을 사리장엄구와 함께 안치하는 것은 실론을 비롯한 남인도 지역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Wilhelm Geiger(trans.), *The Mahāvāsa or the Great Chronicle of Ceylon*(Colombo: The Ceylon Government Information Department, 1950), pp. 198-219.

¹⁸ 『續高僧傳』卷10, T2060, 50:507c.

¹⁹ 『南齊書』卷18, 志第十 祥瑞.

²⁰ 河南省古代建築保護研究所, 「登封嵩岳寺塔地宮清理簡報」, 『文物』(1992, 1), p. 19.

도3 부여 능산리 출토
昌王銘石造舍利龕,
백제(567년),
국립부여박물관 소장



도4 黑漆馬蹄形函,
中國 山東省 출토, 東漢



석함이다도3. 이 석함의 馬蹄形과 비교되는 중국 器形으로는 山東省 출토의 東漢代 漆器가 있다도4. 한편 昌王銘 사리석함의 중앙 수혈공은 계단형으로 입구가 처리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국의 고대 사리석함 수혈공 개착방식과 공통된 것이다. 즉 신라와 마찬가지로, 백제의 경우에도 형식적인 면에서는 중국의 영향이 보인다.

백제의 사리신앙과 장엄방식에 관한 유일한 문헌인 『觀世音應驗記』에는 帝釋精舍의 7층목탑 출토 사리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 탑은 貞觀 13년 불이 났는데, 심초석에서 수정병

안에 들은 사리 6과와 목칠함에 들은 金剛波若經 銅版이 불에 타지 않고 발견되었다.²¹ 이 사리는 南北朝時代의 佛舍利 神異 故事 중 不碎와 移動에 해당하는 神異를 보였다고 하므로, 南北朝時代 寶珠形 舍利信仰의 영향을 찾아 볼 수 있다.²²

帝釋精舍 木塔址에서 발견된 금강반야경 동판은 백제의 法舍利信仰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매우 주목된다. 중국에서는 唐代 後期 이전의 문헌기록이나 실례에서 法舍利나 경전을 탑에 안치한 예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觀世音應驗記』의 기록은 백제에서 南北朝時代의 寶珠形 舍利信仰과 함께 고유한 法舍利信仰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3. 고구려

고구려의 불사리장엄이나 사리신앙에 대한 기록이나 유물은 거의 없다. 『三國遺事』에 의하면 遼東城의 土塔 아래에서 梵書를 발견했다고 하므로 역시 백제와 마찬가지로 法舍利信仰이 확인된다.²³ 法舍利信仰은 인도의 경우에는 기원후 2세기 경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중국에 전래된 것은 7세기경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10세기 이후에야 법사리의 탑내 안치예를 찾아 볼 수 있으며 송대부터 크게 유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백제와 고구려에서 일찍부터 유행했던 法舍利信仰은 중국과는 다른 형태의 사리신앙이며 이후 통일신라의 法舍利信仰의 기원이 된다.

21 牧田諦亮, 『六朝古逸觀世音應驗記の研究』(京都: 平樂寺書店, 1980), p. 60. 『觀世音應驗記』의 대체적인 내용은 중국 南北朝時代의 것으로 여겨지지만, 별도로 추가된 백제관련 기록은 일본에서 어느 시기엔가 덧붙여진 것으로 생각된다. 현존하는 판본이 가마쿠라시대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貞觀 13년은 唐의 연호(639)인지, 일본의 연호(871)인지 불확실하다.

22 南北朝時代의 舍利神異에 대해서는 周冥美, 앞의 논문(주1), pp. 39-55.

23 “三寶感通錄載 高麗 遼東城 傍塔者 古老傳云 昔高麗聖王 按行國界次 至此城 見五色雲覆地 傍有土塔三重 上如覆釜掘尋一丈 得杖并履 又掘得銘 上有梵書 侍臣識之云 是佛塔”(『三國遺事』卷3 塔像 第四「遼東城育王塔」條).

III. 統一新羅

1. 7세기 후반

현존하는 한국 고대 불사리장엄구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작품은 바로 感恩寺址 東西塔에서 출토된 불사리장엄구이다. 感恩寺는 682년 창건된 文武王의 원찰로서, 雙塔의 사리장엄구는 구성방식 및 형식이 서로 유사하다. 구성은 水精瓶-金銅製 內容器-金銅製 方形外函의 3중 구조이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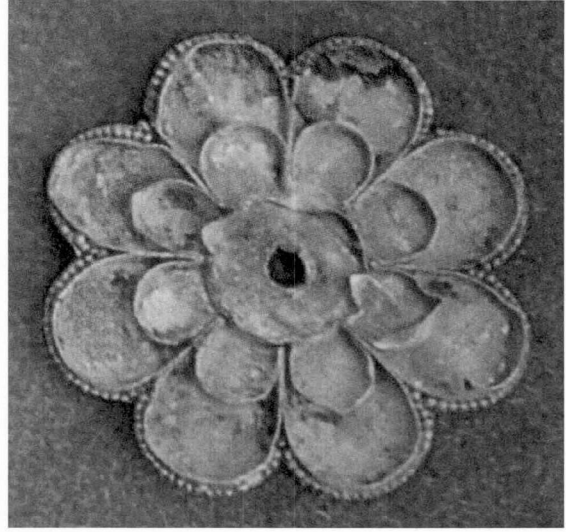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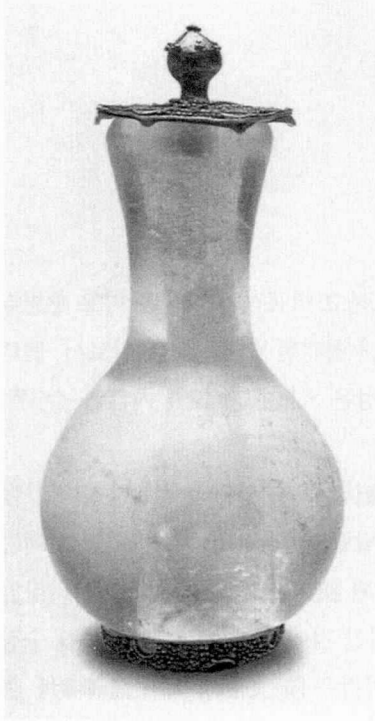
먼저 사리가 봉안된 수정병의 형태와 구조를 보면 隋代 사리장엄구와의 공통성이 보여 주목된다. 감은사 동탑 출토 수정병은 둥근 몸통에 굽이 달렸고, 목은 길게 외반하고 위에는 보주형의 뚜껑이 있다⁵. 이것은 仁壽 4년(604)에 제작된 陝西省 耀縣 神德寺址 사리장엄구 중 유리병의 형태를 조금 더 길고 가는 비례로 변형시킨 것이다. 한편 감은사 동탑 수정병의 뚜껑과 굽받침은 별도의 금판으로 제작하였는데, 이것은 隋 文帝 年間의 淸禪寺址 출토의 金製 裝飾과 비교된다⁶. 감은사와 淸禪寺 출토 금제 장식들은 瓶의 뚜껑 및 장식이라는 용도뿐만 아니라 細線과 細粒을 사용한 鏤金細工技法이 사용되었다는 제작기법 면에서도 공통된다. 그러므로 감은사 수정병에는 隋代의 영향이 많이 보인다.

감은사의 수정병이 안치되어 있던 금동제 내용기는 소위 殿閣形 사리기, 혹은 寶帳形 사리기, 喪輿形 사리기 등으로 불리우는 통일신라 특유의 사리장엄구 형식이다⁷. 이러한 금동제 사리기의 형태는 이제까지 중국에서 발견된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의 독자적 양식으로 알려져 왔으나 그 형식적 기원은 중국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형태를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사리장엄구에 채택한 것은 660년에서 662년에 장안에서 열렸던 法門寺 佛舍利의 봉송때로 추정된다.²⁵ 당시 황후였던 則天武后는 비단 천필

²⁴ 감은사지 서탑은 1959년 國立博物館 주관으로 해체수리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3층 탑신 상면에서 舍利莊嚴具가 발굴되었다. 金載元·尹武炳, 『感恩寺址發掘調查報告書』 國立博物館 特別調查報告 第二冊 (乙酉文化社, 1961). 감은사지 동탑은 1996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서 해체수리되었으며 역시 3층 탑신 상면에서 舍利莊嚴具가 발굴되었으며, 2000년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앞의 책(주3) 참조.

²⁵ 당시 則天武后의 法門寺 사리공양에 대해서는 주경미, 앞의 논문(주1), pp. 107-113 참조. 寶帳이라는 명칭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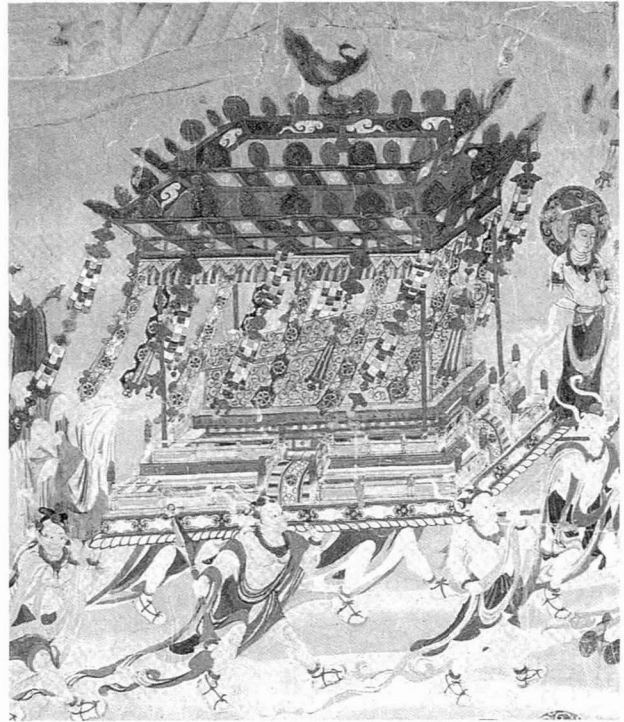
도 6 中國 陝西省 清禪寺址 출토 金製裝飾,
지름 3.5cm, 隋 589년

도 5 경주 감은사지 동탑출토 수정병,
높이 3.7cm,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에 해당하는 물품을 희사하여 금은제 棺槨形 9중 용기를 제작하여 사리를 봉안하게 하였다. 法門寺의 사리는 손가락 뼈 형태의 骨牙形 舍利로서, 당시 황실의 葬送儀禮用 棺槨과 같은 형식의 장엄구에 안치된 것이다. 또한 棺槨의 매장지, 즉 法門寺의 地宮까지의 봉송을 위해서는 현실 장송의례의 喪輿를 불교식으로 변안하여 제작한 靈帳을 사용하였다. 당시의 靈帳은 현존하지 않으나 1987년 발굴된 法門寺 地宮에서는 景龍 2年(708)銘 漢白玉靈帳이 발견되었다도 8.²⁶ 則天武后 연간인 天授 2年(691)銘 山西省 大雲寺址 涅槃佛碑像이나 盛唐期 敦

사용한 가장 이른 중국의 사리장엄구로는 南朝 文宣王이 481년 西域에서 佛牙와 佛髮을 청할 때 小形 寶帳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으나(『法苑珠林』 卷12, T2122, 53:380), 이 寶帳의 형태가 法門寺 靈帳과 동일한 형태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현존하는 유물 중 비교적 이른 예로는 龍門石窟 蓮華洞의 불전부조나(MIHO MUSEUM 編, 『龍門石窟』, 滋賀縣: MIHO MUSEUM, 2001, p. 22),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소장의 東魏 武定元年(543)銘 佛碑像 하단부의 維摩像의 장막(金申, 『中國歷代紀年佛像圖典』, 北京: 文物出版社, 1994, p. 230) 등이 法門寺 靈帳과 동일한 형태로 보이지만, 사리장엄구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

²⁶ 法門寺 地宮의 발굴에 대해서는 陝西省法門寺考古隊, 『扶風法門寺塔唐代地宮發掘簡報』, 『文物』(1988, 10),



도7 中國 甘肅省 敦煌 莫高窟 148窟
西壁 涅槃經變 중 舍利奉送圖, 盛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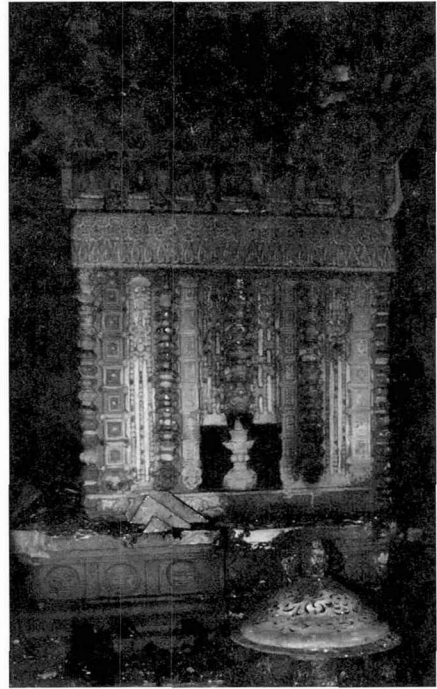
煌 莫高窟 148窟의 涅槃經變 등에서는 이러한 棺槨形 舍利器를 안치한 靈帳의 형태를 찾아 볼 수 있다도7.

662년 法門寺 사리의 재봉송은 당시 수천여명의 신도들이 참여했던 대대적인 행사였다. 이 행사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당시 入唐僧으로 장안에 머물고 있던 義相(625-702)의 행적이다. 義相은 지엄의 문하에서 수학하며 동학으로 있던 賢首法藏(643-712)과 교유관계를 가졌다. 法藏은 則天武后의 두 번째 法門寺 사리공양회 때에 책임자로 활약했으며, 현존하는 法門寺의 708년명 靈帳도9의 제작책임자이기도 하다. 義相과 法藏은 義相의 귀국이 후에도 義相의 입적 전까지 지속적으로 서신교환을 통하여 교우관계를 지속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⁷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義相이 662년의 法門寺 사리공양회에 직접 참여했었거

pp. 1-28 및 周旻美, 「法門寺塔 地宮出土 唐代 舍利莊嚴具의 研究」, 『실크로드文化和 韓國文化』(忠南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1997), pp. 475-525 참조.



도 8 경주 감은사지 동탑출토 金銅製內容器,
통일신라(682년), 높이 16.5cm,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도 9 中國 陝西省 法門寺 地宮 中室 출토
漢白玉靈帳, 唐(708년), 높이 164cm

나 혹은 당시 사용되었던 새로운 사리장엄구와 사리공양회의 의례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義相의 귀국 이후 제작된 통일신라의 사리장엄구에 당시 法門寺 사리봉송과 장엄에 사용되었던 각종 장엄구들의 영향이 보이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法門寺의 708년명 石造靈帳과 감은사탑 출토 金銅製 內容器의 형식적 유사성이다^{도 8, 9}. 두 작품은 모죽임 천장의 형태, 2단의 역사다리꼴 天蓋, 幡과 瓔珞장식, 안상이 마련된 방형대좌, 죽절형의 모서리 기둥 등 전체적인 형태가 유사하다. 靈帳은 南北朝時代부터 사용되었던 帳幕 형태를 사리장엄구의 봉송에 사용하였던 가마에 채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法門寺의 石造靈帳은 실제 목제와 직물로 이루어진 장막형 가마를 石造品으로 변안한 것이며, 감은사의 사

²⁷ 金相鉉, 『新羅華嚴思想史研究』(民族社, 1991), pp. 24-25, 53, 101.



도 10 경주 감은사지 동탑 출토 金銅製外函,
통일신라(682년), 높이 27cm,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도 11 中國 陝西省 西安市 출토 銀製四天王像, 唐
(7-8세기), 높이 22.5/17.5cm, 陝西省歷史博物館 소장

리장엄구는 金屬製로 변안한 것이다.

그러므로 감은사의 內容器는 唐 황실의 사리공양과 장엄방식의 일부를 신라 왕실에서 받아들여 통일신라 특유의 미적 방식으로 재창안한 것이다. 비록 형태적 속성은 중국에서 기원하였지만, 우리가 아닌 수정제 병의 제작, 각종 공양인 조상의 배치, 내용기로의 전환 등 구체적인 양상은 唐과 전혀 다르게 표현된 점이 주목된다.

義相 이후 통일신라에 전해진 法門寺 佛舍利의 명성은 9세기경까지 지속되었다. 『佛祖統紀』에 의하면 唐 宣宗 大中 4년(850) 신라의 승려 한 명이 밤에 法門寺 塔을 도굴하려다가 실패했다는 내용의 기록이 있어서,²⁸ 9세기 중엽경까지 신라 불교계에 法門寺 舍利的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감은사 사리기 金銅製 方形外函의 표면에는 四天王을 비롯한 여러 장식품들이 부착되어 있는데 도 10, 별도로 주조된 장식품을 사리장엄구의 표면에 부착하는 것은 8세기 이후 唐代 佛舍利莊嚴具의 제작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제작기법이다. 중국에서 四天王이 사리장

엄구에 표현되기 시작한 것은 隋代부터로 추정되며,²⁹ 唐代 사리장엄구 중 天王이 표현된 예는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西安에서 출토된 銀製 四天王像도 역시 別鑄된 사리장엄구의 표면장식 일부로 추정되기 때문에도¹¹, 감은사 사리기 외함의 제작기법과 도상 등에는 同時代 중국과의 밀접한 관련성이 보인다.

한편 감은사 사리기의 독자적 양식은 外函의 형태와 기능 면에서 가장 강조된다. 윗면이 방추형인 방형함 형태의 外函은 내함 위에서 뒤집어 씌워서 마치 뚜껑과 같은 형식으로 내함을 감싼다. 이것은 方形塔 형태를 器皿으로 전환한 것이다. 조금 후대인 9세기 法門寺 출토 金塔도 역시 이러한 方形塔形이지만,³⁰ 이것은 內函으로 사용되었으며 건축물의 형식을 그대로 보이고 있어서 방추형으로 단순화된 감은사출토품과는 다른 양식이다.

전반적으로 감은사 사리장엄구의 각 부분에서는 隋代와 唐代 前期의 형식이 부분적으로 간취되지만, 통일신라 특유의 구성 및 종합을 보여 주목된다.

감은사 사리기와 공통된 형식인 경북 칠곡 송림사 전탑 출토 사리장엄구도 기본 형식은 중국의 靈帳을 변형시킨 것이다.³¹ 그러나 제작기법 면에서는 신라의 전통적인 판금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透刻技法과 瓔珞 및 사슬의 제작기법 등은 고신라 古墳出土 각종 장신구류의 제작방식과 동일하다. 이것은 새로이 받아들인 형식의 사리장엄구를 전통적 기법으로 소화해서 독자적인 양식을 창안하여 제작한 것이다.

송림사 사리장엄구는 금속제 용기의 방형바닥에 연화좌를 안치한 점이나 거북형 석함을 外容器로 사용한 점 등에서 隋代의 영향이 많이 보이지만, 전체적인 구성면에서는 감은사 것보다 세련되고 양식화가 진전되었기 때문에 감은사 것보다는 조금 늦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對唐抗爭期였던 7세기 후반, 통일신라 초기의 불사리장엄 방식은 형식적인 면에서는 隋와 唐代 前期 형식의 영향이 많이 보인다. 그것은 아마도 당시 義相을 비롯한 入唐僧들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시기는 전체적인 세트의 구성, 기능의 변화, 제작기법의

28 “(宣宗 大中三年)…明年 有新羅僧 夜盜塔手擊遶亭而行 不離本處 爲衆所覺” (『佛祖統紀』 卷43, T2035, 49:387a).

29 1969년 陝西省 耀縣 神德寺출토 仁壽 4年(604)의 石函 外面에 天王의 線刻畫가 있다고 보고된 것이 가장 이른 예이지만 현재 線刻畫의 전모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朱捷元·秦波, 앞의 논문(주11), p. 127.

30 法門寺博物館, 『法門寺』(西安: 陝西旅遊出版社, 1994), p. 142의 圖版 참조.

31 송림사 전탑 출토 사리장엄구에 대해서는 金載元, 「松林寺 博塔」, 『眞檀學報』 29·30(1966), pp. 15-28 참조. 송림사 사리장엄구의 도판은 『佛舍利莊嚴』, p. 27.

전통화, 도상의 변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통일신라 특유의 양식을 성립하게 되는 시기이다. 삼국통일이자 대당항쟁의 주역이었던 문무왕의 원찰로서 건립된 감은사의 쌍탑에 안치된 사리장엄구는 바로 그러한 중국과의 묘한 교섭관계속에서 중국의 신·구양식이 결합되어 탄생한 독특한 양식의 작품이다.

2. 8세기 전반-8세기 후반

8세기 전반경이 되면 통일신라의 진정한 독자적인 사리장엄구 양식이 등장하게 된다. 이것은 바로 『無垢淨光大陀羅尼經』(T1024, 19:717-721, 이하 無垢淨光經으로 약칭) 전래의 영향이다. 無垢淨光經은 700 - 704년경 彌陀山에 의해서 漢譯된 경전으로서, 한반도에 전래된 것은 漢譯 직후라고 생각된다. 이 경전에 의거한 99개의 小塔 및 다라니공양이라는 새로운 法舍利信仰의 전래는 8세기이후 통일신라 사리신앙과 장엄구의 중추를 이루면서 통일신라의 독자적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이것은 중국에서 無垢淨光經에 의한 사리장엄방식이 비교적 늦은 9세기 이후에 발전한 것과는 대조적이다.³²

현존하는 통일신라의 사리장엄구중 無垢淨光經에 의거한 가장 이른 예는 8세기초 경주 나원리사지 출토 사리장엄구이다도 12.³³ 이 사리장엄구는 단순한 方形函 안에 금동 및 목조 小塔과 다라니 필사본, 불상 등을 안치한 것으로, 法舍利信仰에 의거한 통일신라 특유의 사리장엄 양식을 보여준다.

왕실발원의 8세기 초 사리장엄구인 경주 황복사지 삼층석탑 출토품에는 이러한 통일신라의 독자적 양식과 중국의 영향이 혼재되어 있어서 주목된다도 13. 內容器로 사용된 金函과 銀函은 형식적으로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蠡頂形方形函이다. 또한 사리장엄구와 함께 두 구의 순금제 불상이 함께 봉안되어 있었는데,³⁴ 사리장엄구내의 불상 봉안은 앞서 고찰하였듯

³² 無垢淨光經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현존하는 중국 탑중에서는 '無垢淨光塔'이라는 명칭은 唐 天寶 4년(745)경의 山西省 五臺山 佛光寺 소재 廢博塔銘에서 비교적 이른 예를 찾을 수 있다. 總策劃·白長福 編, 『三晉古塔』(太原: 山西人民出版社, 1999), p. 119. 無垢淨光經과 관련된 陀羅尼經幢의 예는 9세기의 것이 전하지만, 현존하는 중국의 사리장엄구 중에서 이 경전에 의한 사리장엄의 구체적인 실례는 遼代 11세기 전반의 작품들이 가장 이르다. 陀羅尼經幢과 사리신앙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연구성과가 없다.

³³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주 나원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pp. 19-21.



도 12 경주 나원리 오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일괄,
통일신라(8세기전반),
金銅函 높이 12.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 13 경주 황복사지석탑
출토 사리장엄구,
통일신라(692·706년),
金銅函 높이 21.8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 南朝에서 시작되어 백제를 거쳐 통일신라로 전해진 방식이다. 그러나, 外函인 銅函의 형태는 나원리 출토품과 같이 단순한 방형이며, 內函에 비해 급격하게 크기가 커졌다. 또한 표면에는 99개의 小塔이 새겨져 있어서 통일신라의 독자적 양식을 보여준다. 이것은 통일신라 왕실에서 無垢淨光經에 의한 사리신앙을 일찍부터 받아들였음을 뜻한다.

751년 김대성의 발원으로 건립된 경주 불국사 석가탑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 일괄은 8세기 중엽의 통일신라 독자적 양식을 대표한다.³⁵ 外函은 인동당초문이 투각된 方形塔形 金

³⁴ 황복사지 출토 사리장엄구에 대해서는 李弘植, 「慶州 狼山 東麓 三層石塔內 發見品」, 『韓國古文化論攷』(乙酉文化社, 1954), pp. 37-59 및 金載元, 「慶州 九黃洞石塔出土 舍利器 및 佛像」, 『韓國과 中國의 考古美術』(문예출판사, 2000), pp. 87-99 참조.

³⁵ 석가탑의 발굴에 대해서는 李弘植, 「慶州 佛國寺 釋迦塔 發見의 無垢淨光大陀羅尼經」, 『韓國古代史의 研究』(新丘文化社, 1971), pp. 561-587.

동제 사리함으로,³⁶ 내부에는 팔엽연화좌가 마련되어 있어서 隋의 영향이 보이는 古式을 따르면서 高유의 透刻技法으로 제작되었다. 그 안에 안치된 二重의 티출문 계란형 銀盒은 새로이 등장한 통일신라 특유의 형식이다.³⁷ 계란형 은합안에 안치된 유리병은 형식적인 면에서 741년경 제작된 중국 陝西省 慶山寺址 출토 유리병과 공통된다.³⁸ 몸통이 둥글고 목이 길고 가는 형식에 연화좌 받침 구성등이 서로 유사하며 이것은 同時代 문화교섭상을 알려주는 것이다.

석가탑에서도 역시 無垢淨光經의 木版本과 木造小塔이 출토되어 8세기 전반 이후 발전한 통일신라 특유의 法舍利信仰의 영향을 찾아 볼 수 있다. 석가탑 출토의 목조소탑은 고려시대 이후 중수때에 넣어졌다는 견해가 있지만,³⁹ 경전과 탑의 동시 매납은 당연하기도 하며 나원리사지와 같이 이른 예도 있기 때문에 같은 통일신라 8세기 중엽경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8세기이후에는 無垢淨光經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法舍利信仰과 함께 새로운 사리장엄방식이 통일신라에서 크게 발전하였다. 이것은 7세기 후반이후 法舍利에 대한 관심이 玄奘의 『大唐西域記』를 비롯한 여행기류의 몇몇 문헌에서만 나타나는 중국측과는 매우 대조적인 현상이다. 당시 唐의 舍利信仰은 法門寺 舍利와 같은 眞身舍利(身骨舍利)를 중심으로 한 황실 주도의 供養儀禮가 중심이었다.

3. 9세기

9세기 사리장엄은 대체로 통일신라 高유의 양식이 전개되었다. 8세기를 이어서 無垢淨光經에 의한 99소탑 봉헌 방식이 본격화되었고, 사리장엄구로는 통일신라 高유의 기형이라고 할 수 있는 石製壺形이 등장하여 크게 유행한다. 石製壺形은 대부분 同時代의 土器骨壺에서 유래한 형식으로 추정된다.

846년경에 제작된 왕실발원 사리기인 迎日 法光寺址 출토 金銅製壺는 구연이 넓고 어

³⁶ 『佛舍利莊嚴』, p. 31.

³⁷ 앞의 책(주36), p. 30의 圖版 下左.

³⁸ 불국사 삼층석탑 출토 유리병은 위의 책, p. 30의 圖版 下右. 慶山寺 출토 유리병은 『唐の女帝則天武后とその時代展』(東京: 東京都美術館, 1998), p. 79, 圖 39 참조.

³⁹ 金妍秀, 「統一新羅時代 舍利莊嚴에 관한 研究」(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p. 42.



도 14 경북 영일 법광사 삼층석탑 출토 靑銅舍利壺, 통일신라(846년), 높이 6.8cm,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도 15 綠釉印花文骨壺, 경주 남산동 출토, 높이 18cm,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깨에 힘이 들어간 항아리 형태에 낮은 굽과 보주뉴의 뚜껑을 가진 형식이다도 14. 이러한 형식은 조금 이른 시기인 8세기경의 경주 출토 印花文綠釉骨壺의 형식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토착적 器形을 사리장엄구에 사용한 것이다도 15.

역시 왕실발원 사리장엄구인 咸通 4年(863)銘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출토 蠟石製舍利壺는 法光寺址 金銅製壺를 단순화시킨 석제품으로,⁴⁰ 元和 10年(815)銘 경주 출토 土器骨壺와 유사한 형식이다.⁴¹ 이와 같이 9세기의 지배계층이 발원한 사리장엄구가 그 이전시기와는 달리 고유한 토기기형에서 발전한 석제, 혹은 금동제 호를 채택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고유의 석제호 기형과 함께 99소탑과 유리병 등이 안치된 것이 바로 9세기 통일신라 사리장엄의 독자적 양식을 형성한다.

8세기 이후 唐代 사리장엄구의 전형적 형식인 上圓下方形 棺槨形 容器는 통일신라에서는 거의 유행하지 않았다. 현존하는 통일신라의 사리장엄구 중에서 棺槨形 용기에 비견되는

⁴⁰ 『佛舍利莊嚴』, p. 50 참조.

⁴¹ 元和10年銘 土器骨壺에 대해서는 강경숙, 「경주 배동 출토 〈拜洞土器骨壺〉」, 『한국 도자사의 연구』(시공사, 2000), pp. 80-93.



도 16 中國 河北省 定縣 靜志寺 地宮 출토
大中四年銘 鍍金銀塔, 唐(850년), 높이 14.5cm



도 17 경북 선산 桃李寺 世尊浮屠 출토 金銅製舍利器,
통일신라(9세기말), 높이 17cm, 직지성보박물관 소장

것으로는 9세기로 추정되는 안동 임하사 전탑지에서 출토된 은제 용기가 있다.⁴² 그러나 관의 형태는 중국과는 달리 위쪽이 인자형으로 변형되었으며 소형 금속제 방형함과 공반한다는 점에서 통일신라적 특성을 보여준다.

9세기 중반 이후 중국에서 전래된 새로운 형식의 불사리장엄구로는 六角, 혹은 八角圓堂形容器(塔形容器의 변형)가 있다. 중국에서는 梁武帝의 長干寺塔 건립시 七寶塔 형태의 사리장엄구를 제작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唐代 이후의 方形, 혹은 六角形 塔形容器들이 다수 전한다. 六角圓堂形의 가장 이른 중국측 예는 大中 4年(850)銘 河北省 定縣 靜志寺 地宮 출토 銀塔이다 도 16. 板金成形된 이 銀塔은 옥개부, 탑신부, 기단부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면에 魚子文과 毛彫技法으로 당초문과 연화문 장식을 하고 명문을 새겼다.

⁴² 秦弘燮, 「安東 臨河洞 三層石塔內 舍利裝置」, 『考古美術』 7-1(1966, 1), pp. 101-102. 『佛舍利莊嚴』, p. 63의 圖版 上右.

『三國史記』에 의하면 이 銀塔이 제작된 다음해인 851년에 遣唐使로 갔던 元弘이 唐으로부터 佛牙를 전래해왔다고 한다.⁴³ 그러므로, 당시 大中年間의 韓中 사리신앙 및 장엄의 교섭상황이 문헌상에서도 확인된다.

현존하는 통일신라시대의 가장 오래된 圓堂形容器는 872년경으로 추정되는 황룡사출토 금동제 八角圓堂形容器이다.⁴⁴ 이것은 팔각형이지만, 옥개부, 탑신부, 기단부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조립된 점과 표면에 線刻으로 蓮花文과 草花文 등이 새겨진 점 등이 靜志寺 출토 銀塔과 공통성을 보인다.

통일신라의 유일한 六角圓堂形 사리장엄구는 직지성보박물관 소장의 도리사 세존부도출토 금동제 사리함이다¹⁷. 이것은 육각형이라는 점에서는 靜志寺 銀塔과 동일하지만, 제작기법과 도상은 전혀 다르다. 우선 옥개부와 탑신부 두 부분으로 鑄造된 점이 다르며, 표면의 문양도 草花文이 아니라 범천, 제석천과 四天王 등이다. 제작기법이나 도상등으로 볼 때 靜志寺 銀塔이나 황룡사 八角圓堂形容器에 비해 조금 늦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八角, 혹은 六角圓堂形容器의 형태로 미루어, 9세기 중엽경까지 중국의 사리장엄 방식은 형식적인 면에서 한국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통일신라에서는 제작기법이나 도상 등이 중국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양식적인 면에서는 역시 중국과는 다른 독자적인 면을 보인다.

IV. 渤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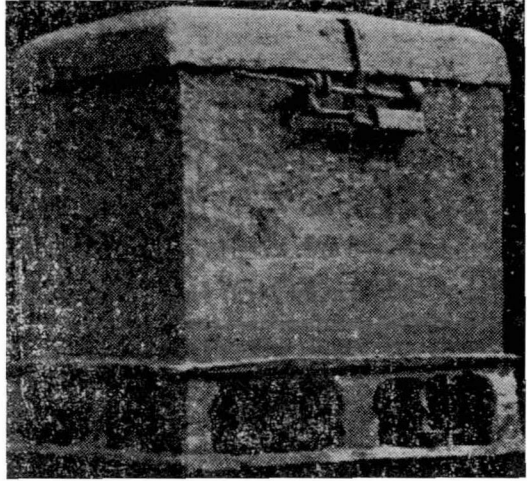
고구려 멸망 이후 그 지역에 세워진 발해의 사리신앙과 사리장엄구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발해 사리장엄구에 대한 연구는 불교 유적의 일부로서 진행되어 왔을 뿐이다.⁴⁵

⁴³ “(十三年)…入唐使阿滄元弘齎佛經并佛牙來 王出郊迎之”(『三國史記』卷11「新羅本紀」第11文聖王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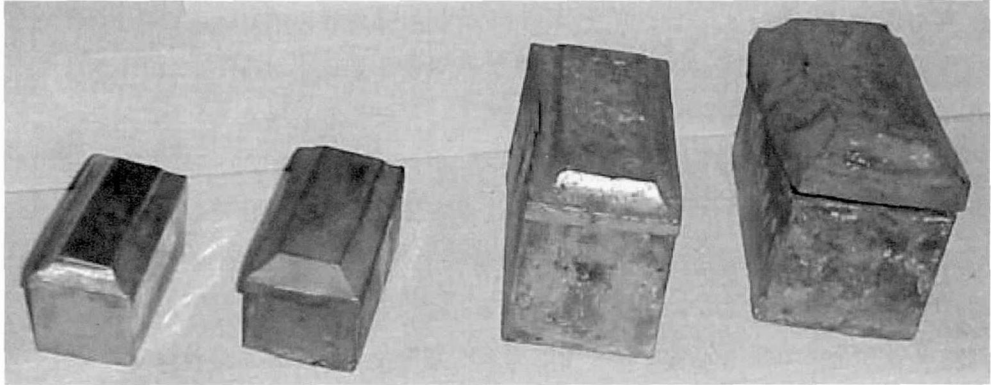
⁴⁴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編, 『皇龍寺 遺蹟調査發掘調査報告書 I』(문화재관리국, 1984), pp. 360-362, 插圖 41-43.

⁴⁵ 宋基豪, 「渤海佛教의 展開過程과 몇 가지 特徵」, 『伽山李智冠스님 華甲紀念論叢 韓國佛教文化思想史』卷上(伽山佛教文化振興院, 1992), pp. 698-725. 方學鳳·朴相份 編著, 『渤海의 佛教遺蹟과 遺物』(書景文化社, 1998), pp. 193-195.

도 18 中國 黑龍江省 寧安縣 출토
鐵函, 발해(9세기)



도 19 中國 黑龍江省 上京城遺址
출토 사리장엄구, 발해(9세기 말),
銅函 높이 7.1cm



黑龍江省 寧安市 土臺子村 寺址에서 출토된 舍利莊嚴具 일괄은 石函, 鐵函, 銅函, 漆匣, 銀函, 銀瓶, 琉璃瓶 등 모두 7중 容器로 구성되어 있다.⁴⁶ 그중 금속제 함은 모두 중국의 蓋頂 形方形函 형식이며 도 18, 특히 높은 기대와 자물쇠가 달린 鐵函의 형식은 法門寺 地宮出土 智慧輪造 咸通12年(871)銘 銀函의 형식과 같다.⁴⁷

黑龍江省 上京城 遺址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도 역시 7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금속

46 寧安縣文物管理所, 「黑龍江省寧安縣出土舍利函」, 『文物資料叢刊』 2(1978), pp. 196-201.

47 『唐皇帝からの贈り物』(長岡: 新潟縣立近代美術館, 1999), 圖 11.

제함은 모두 盞頂形 뚜껑을 가진 장방형함 형식이다⁴⁹. 이러한 장방형함 형식은 역시 9세기 이후 唐末 사리장엄구의 형식을 따른 것이다.

발해의 舍利莊嚴具는 盞頂形方形函 형식과 7중 이상의 다중 용기 사용등 전체적으로 9세기 후반 唐代 사리장엄구와 공통성이 많다. 한편, 발해 사리장엄구의 특징으로는 金細線으로 장식한 漆器가 多重容器的 하나로 사용된 점인데, 이것은 기법적인 면에서 고려 나전 칠기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발해에서도 통일신라와 마찬가지로 棺槨形 容器를 사용한 예는 거의 없다.

발해의 사리신앙과 장엄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墓上樹塔의 발전이다. 즉 일반신도의 무덤 위에 탑을 세우는 방식으로서 발해 왕실의 독자적 풍습으로 알려져 왔으나, 8세기 중반의 唐에서도 일반신도의 무덤위에 탑을 세우던 풍습이 있었다.⁴⁹

陝西省 長安縣 출토의 <故朝散郎前行太史監靈臺郎太原郭府君塔銘>에 의하면, 730년 죽은 郭元誠과 그의 부인 王氏를 위해서 734년 그 무덤 위에 쌍탑을 세웠다고 한다.⁵⁰ 일반인의 시신, 즉 평신도의 사리를 위한 탑을 건립한 것은 일종의 불교적 장례의식으로서 起塔 행위가 행해졌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792년에 죽은 정효공주의 무덤 위에 세워진 吉林省 和龍縣 貞孝公主墓塔은 바로 그러한 唐의 영향으로 보인다.⁵¹ 즉 8세기 전반 唐代 長安 불교계에서 일반 평신도의 장례의식으로 행해졌던 墓上樹塔 방식이 그대로 발해 왕실에 전해진 것이다. 중년남자의 유골이 발견된 吉林省 琿春縣 馬滴達塔도 역시 그러한 영향으로 세워진 것이다.⁵² 이들 묘탑의 존재는 8세기 후반 이후의 발해 불교계가 중국 장안 불교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48 사리장엄구의 발견에 대한 경위는 金太順, 「상경 용천부와 새로 발견된 사리함」, 『발해건국 1300주년(698-1998)』, 高句麗研究 6(학연문화사, 1999), pp. 274-276. 도판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宋基豪 선생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이 지면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

49 방학봉, 「발해인의 매장 습관과 그의 특징에 대하여」, 『韓國傳統文化研究』 6(暁星女子大學敎 韓國傳統文化研究所, 1990, 8), pp. 12-16.

50 桑紹華·張蘊, 「西安出土文安公主等墓志及郭彥塔銘」, 『考古與文物』 48(1988, 4), pp. 77-84.

51 방학봉, 「발해 정효공주무덤과 하남툰 무덤에 대하여」, 『韓國學報』 72(1993), pp. 262-285.

52 長錫瑛, 「琿春馬滴達渤海塔基」, 『博物館研究』 6(1984, 2), pp. 91-94.

V. 맺음말

이제까지 한국과 중국의 고대 불사리장엄에 대해서 형식적 신앙적 측면을 중심으로 비교고찰하였다. 韓中 古代 佛舍利莊嚴의 양식이 일부 상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로 형식적 측면에서 한국이 중국의 영향을 꾸준히 받았기 때문이다. 새로운 器形의 등장은 당시 중국과의 교섭에 의해서 전래된 경우가 많으며 특히 8세기 전반경까지는 중국의 영향이 비교적 컸다. 그러나 삼국통일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 佛舍利信仰 자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통일신라의 불사리장엄 양식은 중국과는 다른 독자적인 양식을 성립하게 된다.

이러한 통일신라 양식의 성립에 가장 중요한 것은 無垢淨光經과 같은 경전을 통한 法舍利信仰의 발전이다. 法舍利信仰이 발전하게 되었던 것은 아마도 당시 통일신라에서 眞身舍利가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혹은 眞身舍利라는 물질적인 유물의 숭배 대신 정신성을 강조한 신라 불교의 教義的 측면 때문일 수도 있다. 중국내에서 法舍利信仰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吳越國 이후부터라고 생각된다.

사리신앙 자체가 중국과 많이 달랐던 8세기 이후의 통일신라 불사리장엄 양식은 독자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물론 일부 장엄구의 형식에서는 중국의 영향이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통일신라에서는 장엄구의 세트화, 표현방식, 도상, 제작기법, 선호형식 등에서 독자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독자적 양식 성립의 가장 큰 배경으로는 독자적 신앙의 존재가 중요했다.

발해의 경우에는 불교가 비교적 늦게 발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인지, 同時代 중국 長安 불교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통일신라와는 달리 발해의 사리장엄구는 唐代 後期 사리장엄구와 형식적으로도 양식적으로도 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그것은 사리신앙면에서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과 관련된다.

한국 미술은 중국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으나, 그러한 영향아래에서 선택은 언제나 독자적인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통일신라시대 불사리장엄은 바로 그러한 한국 미술의 독자적인 선택과 양식의 수립 과정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주제이며, 본고에서는 중국과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 고대 불사리장엄의 독자성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고대 불교 미술에 새로운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부족한 글을 맺는다.

* 주제어: 사리장엄구, 신라, 당, 무구정광대다라니경

ABSTRACT

The Chinese Influences on the Korean Ancient Buddhist Reliquaries

Joo Kyeong-mi

Ever since the introduction of Buddhism in Korea, the reliquaries of Korea had been influenced by Chinese reliquaries like other Buddhist arts. Under such influences, however, the original forms and types could have been developed in Unified Silla. Such original development was viable due to the distinctive practice of śāriṃa cult. This thesis tries to understand the original style of the reliquaries of ancient Korea by studying the Chinese influences from Three Kingdom period to Balhae.

Although Goguryeo encountered Buddhism firstly, it was ancient Silla which developed the culture of sari reliquaries and sari cult most. At the first year of Renshou when Wenti of Sui dynasty made nation-wide offerings of śāriṃa, the envoys of Goguryeo, Baekje, Silla brought the sari offering to Korean peninsular. In the small number of the extant reliquaries, we can find strong Chinese influences. The forms of several reliquaries such as square box made of stone and round container with a round lid are similar to those of ancient Chinese reliquaries. What distinguishes Korean śāriṃa faith to Chinese śāriṃa faith is the early development of the faith of dharma sari which places sutra inside a pagoda.

We can find the unique features of Unified Silla in the early reliquaries such as those from east and west pagodas of Gameunsaji although the influences of Sui china and Tang China were still visible. The Chinese influences are found in the existence of inner

containers similar to those from Famensi Temple (708) and the decoration of four guardians, which influences were brought to Korea by traveling monks to China. The distinctive Korean style is found in the arrangement and composition of a reliquary and the development of technique of metal craft.

From the early eighth century, a new kind of the cult of dharma sarīra started, which worshiped darani offering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Raśmivimalaviśubhāprabhānāma-dhāraru. The Buddhist relie worship based on the sutra persisted by the mid ninth century producing original styles of Korean reliquaries.

From the ninth century, the Unified Silla developed an original form of reliquaries such as pot-like containers. The Chinese influences persisted in the reliquaries of the mid ninth century in six-sided or eight-sided round containers. They, however, shows original styles from the early period in terms of technique and iconography.

In Balhae, which was founded after the fall of Goguryeo, various types of reliquaries developed along with the flourishing Buddhism. The reliquaries of Balhae were influenced by Chinese reliquaries as can be shown in rectangular containers, seven-folds containers, pagodas on the tomb of lay people.

We can find many similarities between the reliquaries of China and Korea in ancient times, since Chinese reliquaries influenced Korean ones a lot in terms of forms and types. The introduction of a new container was possible with the exchange with China. Before the early eighth century, the Chinese impacts were strong.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Dynasties, the reliquaries of Unified Silla could establish a unique style which is distinct from Chinese reliquaries. It was possible due to chan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dharma faith based on Raśmivimalaviśubhāprabhānāma-dhāraru. The reliquaries from the late eighth century show distinctive development. Although there are still Chinese influences in the forms of some reliquaries, it was composition of reliquaries as a single set, expression, iconography, techniques that revealed the distinctive style of Korean reliquaries.

Korean art, although under persistent Chinese influences, made original development of its own style. The original development of reliquaries of the Unified Silla could be traced in more concrete ways due to the comparison with Chinese reliquaries. The

reliquaries of Korea are important art works showing the original character of ancient Korean Buddhist art.